

## S대학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박향숙<sup>†</sup> · 김진수 · 최부근  
신성대학 치위생과

## The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Health at 'S' college Dental Clinic

Hyang-Sook Park<sup>†</sup>, Jin-Soo Kim and Boo-Keun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College, Choongnam, 343-861, Korea

**ABSTRACT** For study on the mouth health care of patients for practical training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this survey was conducted among patients for practical training of the junior clas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S College from September 2, 2004 to May 29, 2005. Before scaling, the purposes of the study and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were explained an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the pati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m personally and then they were collected. 249 copies except 11 copies of insincere answe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bject of study wa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nonprobability sampling. 1.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study, for sex, male occupied 138 (55.4%) and female occupied 111(44.6%). For the habitation site, Chungcheongdo residents were 181 people (72.7%), Incheon Gyeonggi 55(22.1%) and Seoul 13(5.2%). For ages, 19-29 age people were 122(49.0%), 30-39 age 25(10.0%), 40-49 age 45(18.1%), 50-59 age 42(16.9%) and 60-70 age 15(6.0%). For scaling experience, 144 people (57.8%) had it and 105 people (42.2%) did not have it. 2. As for the mouth health care, for brushing method, crossways brushing was 164 people (65.9%), rotation brushing was 63 people (25.3%) and longways brushing was 22 people (8.8%). For brushing times, 2 times was 134 people (53.8%), over 3 times was 99 people(39.8%), and 1 time was 16 people (6.4%). For brushing time, after a meal was 182 people (73.1%) and before a meal was 67 people (26.9%). As for the mouth aids, 40 people (16.1%) used them and 209 people (83.9%) answered not to use them. 3. As for brushing method according to sex, it was found that both male and female use crossways brushing most, and male uses crossways brushing and longways brushing more than female and female uses rotation brushing more. For brushing times, it showed that 2 times was the most as 59.4% for male and over 3 times was the most as 50.5% for female. The survey of brushing time found that 33.3% of male brush their teeth before a meal and 81.1% of female brush their teeth after a meal. 4. For brushing method according to the habitation site, it was found that Chungcheongdo, Incheon Gyeonggi and Seoul use crossways brushing most and longways brushing least. The mouth aids were proved to be used in Incheon Gyeonggi most and in Chungcheongdo least. For brushing times, 2 times was the most in all three locations. 5. As to brushing times according to ages, only 30-39 age did brushing over 3 times, and the rest ages did brushing 2 times most. The survey of the use of the mouth aid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caling found that as they have the experience of scaling, they use them.

**Key words** Oral health care, Scaling, Dental hygiene department

### 서 론

전신건강의 일부로서 구강건강은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에 관여하며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관문으로서 행복을 영위하는 필수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sup>1)</sup>. 뿐만 아니라 구강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음식물섭취와 세균, 타액 및 저작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구강 내 불결한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구강질환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강보건법에는 9조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 3년 주기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정부는 한국구강보건연구원과 대한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하여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2000년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sup>2)</sup>.

기초구강건강조사는 인구집단의 현재 구강건강 실태와 미래의 구강보건진료수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공중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구강보건인력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sup>3)</sup>.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52-270-0292

Fax: 052-270-0239

E-mail: yamako93@choonhae.ac.kr

따라서 구강보건분야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대처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습환자들의 구강검사결과를 근거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실태를 파악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적절한 구강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과 구강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2004년 9월 2일부터 2005년 5월29일까지 S대학 치위생과에 내원한 스켈링 실습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스켈링을 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작성하게 한 다음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한 24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 2. 연구방법

설문지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성별, 거주지, 연령, 스켈링 경험이며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항목으로는 잇솔질 방법,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 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구강건강관리는 각 조사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였고,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는 성별, 거주지, 연령, 스켈링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잇솔질 방법,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를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각각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교차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cell의 수가 전체 cell의 25% 이상인 변수는 Fisher의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38명(55.4%)이고, 여자가 111명(44.6%)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충청도가 181명(72.7%)이고, 인천경기가 55명(22.1%)이며 서울이 13명(5.2%)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9세가 122명(49.0%), 40-49세가 45명(18.1%), 50-59세가 42명(16.9%), 30-39세가 25명(10.0%), 60-70세가 15명(6.0%)순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은 144명(57.8%)이 있고 105명(42.2%)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는 Table 2와 같다. 잇솔질 방법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Percentage (%)
	Total	249	100
Sex	Male	138	55.4
	Female	111	44.6
Place of residence	Chung cheong do	181	72.7
	Inchon-Gyeong gi	55	22.1
	Seoul	13	5.2
Age	More than 19-29 age	122	49.0
	30-39 age	25	10.0
	40-49 age	45	18.1
	50-59 age	42	16.9
	60-70 age	15	6.0
Experience of scaling	Yes	144	57.8
	No	105	42.2

Table 2. The oral health care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Percentage (%)
	Total	249	100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164	65.9
	Vertical method	22	8.8
	Rolling method	63	25.3
Frequency of brushing teeth	1times	16	6.4
	2times	134	53.8
	Over 3times	99	39.8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67	26.9
	After breakfast	182	73.1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40	16.1
	No	209	83.9

은 횡마법이 164명(65.9%)이고, 회전법은 63명(25.3%)이며 종마법은 22명(8.8%)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2회가 134명(53.8%), 3회 이상이 99명(39.8%), 1회가 16명(6.4%)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식사 후가 182명(73.1%)이고, 식사 전이 67명(26.9%)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209명(83.9%)이 '사용하지 않는다'로 나타났고, 40명(16.1%)만 '사용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 1)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잇솔질 방법,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횡마법과 종마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회전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에서 남자는 2회를 59.4%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여자는 3회 이상이 50.5%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남자의 33.3%가 식사 전에 잇솔질을 하고, 여자는 81.1%가 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3. The oral health care by sex Number of respondents (%)

Characteristics	Sex		$\chi^2$	P	
	Male(n=138)	Female(n=111)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98(71.0)	66(59.5)	6.955	.031
	Vertical method	14(10.1)	8(7.2)		
	Rolling method	26(18.8)	37(33.3)		
Frequency of brushing teeth	1times	13(9.4)	3(2.7)	11.886	.003
	2times	82(59.4)	52(46.8)		
	Over 3times	43(31.2)	56(50.5)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46(33.3)	21(18.9)	6.499	.011
	After breakfast	92(66.7)	90(81.1)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17(12.3)	23(20.7)	3.221	.073
	No	121(87.7)	88(79.3)		

Table 4. The oral health care by Place of residence Number of respondents (%)

Characteristics	Place of residence			$\chi^2$	P	
	Chung cheong do (n=181)	Inchon-Gyeong gi (n=55)	Seoul (n=13)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126(69.6)	31(56.4)	7(53.8)	6.955	.031
	Vertical method	16(8.8)	5(9.1)	1(7.7)		
	Rolling method	39(21.5)	19(34.5)	5(38.5)		
Frequency of brushing teeth	1times	13(7.2)	3(5.5)	-	1.996	.736
	2times	95(52.5)	30(54.5)	9(69.2)		
	Over 3times	73(40.3)	22(40.0)	4(30.8)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52(28.7)	10(18.2)	5(38.5)	3.317	.190
	After breakfast	129(71.3)	45(81.8)	8(61.5)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23(12.7)	15(27.3)	2(15.4)	6.642	.036
	No	158(87.3)	40(72.7)	11(84.6)		

Table 5. The oral health care by age Number of respondents (%)

Characteristics	Age					$\chi^2$	p	
	19-29age (n=122)	30-39age (n=25)	40-49age (n=45)	50-59age (n=42)	60-70age (n=15)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73(59.8)	15(60.0)	32(71.1)	33(78.6)	11(73.3)	7.908	.443
	Verticalmethod	11(9.0)	3(12.0)	3(6.7)	3(7.1)	2(13.3)		
	Rolling method	38(31.1)	7(28.0)	10(22.2)	6(14.3)	2(13.3)		
Frequency of brushing teeth	1times	3(2.5)	-	3(6.7)	7(16.7)	3(20.0)	21.195	.007
	2times	67(54.9)	12(48.0)	22(48.9)	24(57.1)	9(60.0)		
	Over 3times	52(42.6)	13(52.0)	20(44.4)	11(26.2)	3(20.0)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30(24.6)	6(24.0)	13(28.9)	14(33.3)	4(26.7)	1.413	.842
	After breakfast	92(75.4)	19(76.0)	32(71.1)	28(66.7)	11(73.3)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19(15.6)	3(12.0)	12(26.7)	5(11.9)	1(6.7)	5.601	.231
	No	103(84.4)	22(88.0)	33(73.3)	37(88.1)	14(93.3)		

## 2) 거주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거주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는 Table 4와 같다. 거주지에 따라 잇솔질 방법과 구강보조용품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에서 충청도, 인천경기, 서울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종마법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세 지역 모두 2회가 가장 많으며 잇솔질 시기는 세 지역 모두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 3)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는 Table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잇솔질 횟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0-39세만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나이에서는 2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잇솔질 방법, 잇솔질 시기,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모든 나이에서 횡마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도 모든 나이에서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조용품도 모든 나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oral health care by experience of scaling Number of respondents

(%)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scaling		$\chi^2$	P	
	Yes(n = 144)	No(n = 105)			
Method of brushing teeth	Scrub method	93(64.6)	71(67.6)	.259	.879
	Vertical method	13(9.0)	9(8.6)		
	Rolling method	38(26.4)	25(23.8)		
Frequency of brushing teeth	1times	7(4.9)	9(8.6)	2.425	.298
	2times	75(52.1)	59(56.2)		
	Over 3times	62(43.1)	37(35.2)		
Time of brushing teeth	Before breakfast	33(22.9)	34(32.4)	2.766	.096
	After breakfast	111(77.1)	71(67.6)		
The oral hygiene products	Yes	30(20.8)	10(9.5)	5.760	.022
	No	114(79.2)	95(90.5)		

4) 스킨링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스켈링 경험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킨링 경험이 있을 수록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에 따라 잇솔질 방법,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스킨링 경험에 관계없이 횡마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종마법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도 스킨링 경험에 관계없이 2회가 가장 많았고 잇솔질 시기도 식사 후가 많게 나타났다.

고 찰

구강건강이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적절한 생리적 구강기능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sup>4)</sup>, 구강상병은 숙주요인과 환경요인 및 병원체요인으로 구분되고, 이들 세가지 구강상병발생 요인이 동시에 함께 작용할 경우 구강상병이 발생되어 구강건강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구강상병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강상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킬 수 있다<sup>5)</sup>. 양대 구강병으로 알려진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치아우식증은 조기에 예방 및 관리를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되면서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는 잇솔질 방법중 횡마법이 6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강<sup>6)</sup>의 연구에서 '옆으로 닦는다'에서 초진환자 41.2%, 유지관리환자 29.0%로 나타난바와 같이 본 연구와 비슷하게 '옆으로 닦는다' 가 높게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1일 2회가 53.8% 로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다르게 조사된 조<sup>7)</sup>의 연구는 일일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이 많았으며, 이<sup>8)</sup>의 연구에서도 일일 칫솔질 횟수가 전체 근로자에서 2.8회로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sup>9)</sup>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제과, 제빵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사업장에서 칫솔질을 하는 근로자가 40.4% 라고 보고 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설비와 환경을 조성하였으리라 사료되어 본 연구결과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강보조용품은 83.9%가 '사용하지 않는다'로 나타나는 강<sup>6)</sup>의 연구에서도 응답한 초진환자 61.9% 유지관리환자 12.9%로 보고하여 대부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높아진 만큼 보조적인 구강위생용품의 구입이 보편화되고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서 잇솔질 방법,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에서 남자는 2회를 59.4%, 여자는 46.8% 이고, 3회 이상이 남자는 31.2% 여자는 50.5%로 나타났다. 이<sup>10)</sup>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을 많이 한다는 보고와 치과치료 서비스 이용이 여자가 많다고 보고<sup>11)</sup>한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무엇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구강건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잇솔질 방법과 구강보조용품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를 보면 서<sup>12)</sup>의 연구에서 이썬시개를 사용하는 자의 율이 29.4%, 양치용액을 사용하는 자의 율은 17.2%, 치실을 사용하는 자의 율이 2.5%로 이썬시개와 양치 용액을 제외하고는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구강위생용품 중에서는 이썬시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인천·경기, 지역은 도시 거주민이 대부분인 반면에, 충청도는 군·읍·면 지역 거주민이 대부분이어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구강보조용품 사용이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내용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양한 구강보조위생용품을 국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전문가들이 개별 구강환경 상태에 따라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추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연령에 따라 잇솔질 횟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30-39세가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sup>13)</sup>의 연구에 의하면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치료를 위한 방문과 이를 뽑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30대가 치과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므로 구강위생관리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리라 사료되어진다.

스켈링 경험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서는 스켈링 경험에 따라 구강보조용품 사용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켈링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sup>14)</sup>의 연구에서도 치석제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일수록 치실 13.1%, 치간치솔 8.7%, 전동치솔 2.9% 순이며, 안 받은 그룹의 치간치솔 2.9%, 치실 1.7%, 전동치솔 0.9% 보다 사용여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많은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이 치석제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sup>6)</sup>는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서 치주질환의 이환율이 높게 나타나 칫솔만으로 치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그리고 김<sup>14)</sup>은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구강위생관리 태도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되었듯이 스켈링을 시행하는 치과위생사가 단지 스켈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스켈링 후의 구강상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용품의 필요성, 사용법, 효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몇 지역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향후 구강건강 측정기구 사용에 따른 조사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분석한다면 더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실태에 대하여 정밀한 구강건강측정에 의한 다각적인 연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요 약

치위생과 실습환자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9월 2일부터 2005년 5월 29일까지 S대학 치위생과에 내원한 스켈링 실습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남자가 138명(55.4%)이고 여자가 111명(44.6%)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는 충청도가 181명(72.7%)이고 인천경기가 55명(22.1%)이며 서울이 13명(5.2%)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9세가 122명(49.0%), 40-49세가 45명(18.1%), 50-59세가 42명(16.9%), 30-39세가 25명(10.0%), 60-70세가 15명(6.0%) 순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은 144명(57.8%)이 있고 105명(42.2%)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건강관리는 잇솔질 방법에서 횡마법이 164명(65.9%)이고, 회전법은 63명(25.3%)이며, 종마법은 22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2회가 134명(53.8%), 3회 이상이 99명(39.8%), 1회가 16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식사 후가 182명(73.1%)이고, 식사 전이

67명(26.9%)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40명(16.1%)이 사용하고 있고, 209명(83.9%)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3. 성별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남자와 여자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횡마법과 종마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회전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에서 남자는 2회를 59.4%로 가장 많이 하고 여자는 3회 이상이 50.5%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남자의 33.3%가 식사 전에 잇솔질을 하고, 여자는 81.1%가 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충청도, 인천경기, 서울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종마법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세 지역 모두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에 따른 잇솔질 횟수는 30-39세만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2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스켈링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김혜진: 산업근로자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 보건복지부: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2001.
3. 장기완, 김진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구강건강조사법. 고문사, 서울, pp. 5-20, 2000.
4. 임병철: 구강보건학. 청구문화사, p. 13, 1999.
5.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신승철, 장기완, 홍석진, 송근배, 마득상 등: 예방치학. 고문사, pp. 5-6, 1999.
6. 강현경: 치주질환자의 유지관리효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조은별: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위.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이태현, 이수정, 김진범: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및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1(2): 279-300, 1997.
9. 조영수: 제과 종사자의 치아우식증 유병 실태 연구(2). 산업구강보건학회지 3(1): 60-70, 1994.
10. 이태연: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부산대학교 치의학 석사학위논문, 1997.
11. 김혜영: 한국인의 치과진료서비스 이용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1998.
12. 서은주: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3. 정은경: 제조업 근로자의 스켈링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 대구한 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 김은주: 구강건강 신념과 구강보건 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Received, June 2 2006; Accepted, June 24 2006)

